

진로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황매향)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직업의 사회적 지위, 적성과의 일치도, 성역할인데, 이 세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기해 나가는 것이 타협의 과정이다.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타협은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난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계되는 진로 자아개념은 바로 타협의 내적 기반이며, 그 발달은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전체를 통해 발달한다. 진로 자아개념은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한 지침 또는 준거의 틀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자신에게 가능한 진로대안에 타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타협의 과정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상적인 진로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발달단계별 타협과정, 효율적인 타협을 위한 의사결정 전략, 진로대안의 여러 측면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 등 여러 관점에서 타협과정이 연구되어 왔다.

타협이론

1. 진로자아개념의 발달

진로자아개념 발달의 보편성

진로자아개념 발달의 개인차

2. 의사결정 모형

기대효용 모형

결합 모형

순차적 배제 모형

3. 타협측면의 우선순위

타협과정의 원리

타협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타협과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

1. 진로자아개념의 발달

가. 진로자아개념 발달의 보편성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타협은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난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계되는 진로자아개념은 바로 타협의 내적 기반이며, 그 발달은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전체를 통해 발달한다.

a.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

*환상적(Fantasy):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적인 장벽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잠정적(Tentative);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미래를 결정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현실적(Realistic); 일반적으로 17세 정도 시작, 현실성있는 고려를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회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b. Gottfredson(1981, 1996)

타협과정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Gottfredson은 진로자아개념 발달과 타협과정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진로기대(진로자아개념)의 발달은 여러 가능한 직업에 대한 탐색, 제외, 선택의 과정과 관련된다.

-직업에 관한 인지지도(the cognitive map of occupations);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 인지지도는 남성성/여성성, 직업의 지위수준, 일의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직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직업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의 성역할과 지위수준의 두 차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지지도; 이 인지지도에서 직업의 지위수준은 일의 복잡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직업의 지위차원은 능력의 차원과도 같다.

진로자아개념 발달단계(Gottfredson)-3단계까지는 자신이 추구할 만한 진로대안의 영역을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축소시켜 나가고, 4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 자신의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로대안을 축소시켜 나가는 진로대안의 제한(circumscription)과정이다.

1. **서열획득 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3~5세): 아동이 대상 항상성 개념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시기, 외형적인 특징으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한다. 동시에 직업을 성인의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 어른들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 아동은 어른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2. **성역할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 6~8세): 이 시기를 통해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고해진다. 인지적 특성은 사물이나 사태를 이분법적으로 지각(좋은 것과 나쁜 것). 직업은 성역할로서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직업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3. **사회적 가치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9~13세): 이 시기는 또래를 비롯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들을 선호 직업목록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얻기 힘든 직업들도 역시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자신이 앞으로 가질 직업에 대해 사회적 지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직업적 포부를 형성하게 된다.

4. **내적 자아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 14세):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보다 내면세계의 목적을 추구하고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에 근거한 자아개념을 확립하면서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자신의 독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직업대안의 영역을 확립한 청소년들은 이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특성들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앞의 세 단계가 수용하기 힘든 직업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과정인 데 비해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진로대안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 지금까지의 발달과정을 통해 진로선택의 폭을 축소해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꿈꾸어 온 진로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진로기대 수준을 포기하는 타협의 과정이 구체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요구된다.

-Helwig: DOT(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SVP(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지표를 부여하여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직업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남성 직업, 여성 직업, 중성 직업으로 분류하여 이론을 검증, 13~14세 이전까지는 학생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포부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증가하여 Gottfredson의 이론을 지지하였고, 또한 14세 이후부터 사회적 가치보다는 내적 직업흥미와 더 부합하는 직업포부가 확인되면서 지지되었다.

나. 진로자아개념 발달의 개인차

Super(1953) :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 잘 기술

- ①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다.
- ②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 직업에 각각 적합한 자질을 갖게 된다.
- ③ 각 직업들에 적합한 능력, 흥미, 성격적 특질에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고 있어서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다양한 직업이 가능하고, 한 직업 내에도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자아개념이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으로 청소년 후기가 되면 잘 변화하지 않지만, 직업에 대한 선호도나 능력은 자신이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선택과 적응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처나간다.
- ⑤ 이 과정은 성장, 탐색, 성취, 유지, 퇴보라는 인생의 각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단계들은 (a)탐색기의 환상적, 시험적, 현실적 단계, (b)성취기의 시도와 안정의 단계로 구분된다.
- ⑥ 습득된 직업의 수준과 안정적 직업의 연계, 빈도, 기간을 나타내는 진로패턴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적능력, 성격적 특성과 그 동안 경험했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 ⑦ 생애 각 단계에서의 발달은 능력과 흥미의 성숙과정을 통해 촉진될 수 있고 현실검증과 자아개념 발달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⑧ 진로발달의 과정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그 적용의 과정과도 같다: 자아개념은 타고난 적

성, 신경 및 내분비 체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의 기회, 동료나 지도자에 의한 역할 놀이에 대한 평가정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고 이것은 일종의 타협과정이다.

⑨ 개인과 사회적 요인, 즉 자아개념과 현실 사이의 타협의 과정은 일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역할은 환상기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상담 면접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급, 클럽활동, 임시직, 정규직업 등 현실생활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⑩ 일에 대한 만족도와 생애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그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을 외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찾는 정도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일에서의 성취, 일의 상태, 자신의 성장과 탐색적 경험이 적절하게 여겨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방식에 의해서도 만족도는 결정된다.

-Super(1984)는 진로선택의 발달적 특성은 최초의 직업선택에만 초점을 둔 정체적인 개념화보다는 발달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일련의 선호성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택의 연속적 근접화 과정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Gati(1993)

대부분의 진로의사결정은 이 세 가지 측면(Gottfredson의 성역할, 흥미, 지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가 더욱 의미 있는 변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의 제1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또는 진로의 측면이 무엇인지 명료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13가지 가치: 교육 및 훈련기간, 작업의 물리적 환경(실내/실외), 출장빈도, 업무시간(정규직/비정규직), 작업시간의 융통성, 경제적 안정성, 승진의 기회, 권위의 수준, 수입, 사회적 지위, 다양성, 책임성, 독립성의 정도

다음은 이러한 진로자아개념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 검토

2. 의사결정 모형

Krumboltz와 Hamel(1977)의 진로의사결정 7단계(DECIDES)

- 1) 문제를 정의 한다(Define the problem)
- 2) 계획을 수립한다(Establish an action plan)
- 3) 가치를 명료화한다(Clarify value)
- 4) 대안을 모색한다(Identify alternatives)
- 5) 결과를 예측해 본다(Discover probable outcomes)
- 6) 대안을 체계적으로 배제해 나간다(Eliminate alternatives systematically)-타협
- 7) 행동을 시작한다(Start action)

기대효용 모형(Expected Utility Model, EUM) - 상보적 의사결정 모형

-가능한 진로대안들이 자신이 고려하는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utility), 즉 만족감을 주는가를 비교해서 그 중 가장 높은 효용을 갖는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것.

결합 모형(Conjunctive Model, CM) - 비상보적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자가 모든 직업의 측면에 대해 최소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용의 최소 선을 먼저 정한다. 이 효용의 최소 선이라는 준거를 진로대안 각각에 적용하여 모든 측면의 효용 최소 선을 만족시키는 진로대안을 선택한다.

순차적 배제 모델(Sequential Elimination Model, SEM) - 비상보적 의사결정 모형

-직업의 모든 측면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 근거하여 진로대안들을 포기하거나 제외시킨다. 의사결정자들은 먼저 자신에게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 정하고 가장 중요한 측면부터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진로대안에 적용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진로대안을 제외시킨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을 나머지 진로대안에 적용하여 다시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안을 제외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측면을 만조시키지 못하는 진로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켜 나가는 모델이다.

가. 기대효용 모델

Gelatt(1962)는 Bross(1953)의 의사결정 이론을 진로의사결정에 적용하였다.

Bross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과정은 가능한 대안들, 가능한 결과, 확률 등을 측정하는 예측체계, 결과와 관련된 효용을 가늠하는 가치체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통합하는 의사결정 준거체계로 구성된다. Gelatt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진로의사결정 모델을 고안하여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가치관 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최고의 만족도를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Gelatt의 모델이 진로의사결정 영역의 연구에서 기대효용 모델로서 처음으로 소개된 모델이다.

Kaldor와 Zytowski(1969)는 경제학 분야의 의사결정 모델을 근간으로 직업선택 과정의 기대효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Kaldor와 Zytowski는 개인의 직업만족도 함수(선호도체계), 개인의 자원이나 가용한 자료, 기대되는 결과(만족도의 차이)의 세 요소를 진로선택의 결정인자로 보고 있다. 모델에서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의사결정 자원을 보호해주는 진로대안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 자신의 가치관을 각 대안의 예상되는 결과에 적용시켜 예측해본다. 동시에 개인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여 각 대안에 대한 최종적인 만족도를 구한다. 즉 선택된 진로대안은 득과 실을 모두 고려한 최종적인 만족도 값이 최대인 진로대안이 된다.

Mitchell과 Beach(1976) 그리고 Wright(1984)는 주관적 기대효용모형을 제시하면서 의사결정자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극대화가 의사결정의 목표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의 영역에서 주관적인 가치와 가능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진로의 측면들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고려되는 직업이나 진로의 특성이 동일한 중요성으로 다루어지던 기존의 모델을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개인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기대효용 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도 있다. Pitz와 Harren(1980)은 모든 중요한 관련 정보들을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대효용 모델은 정보를 통합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의사결정자가 문제의 구조를 정의하고 그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다.

나. 결합 모델

기대효용 모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인지적인 활동이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과다하다고 본 몇몇 연구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의 부담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선택모델을 제시하였다.

Simon(1957)의 만족의 원리

만족할 만한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대안들을 하나씩 탐색하고, 어떤 대안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직업의 측면들을 각각 최소한 만족할 수준 정도만 만족시키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합 모델과 기대효용 모델과의 차이는 진로대안에 대한 탐색의 깊이이고, 결합 모델에서는 어떤 진로대안이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최소 수준 만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배제시킨다.

비상보적 과정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각 단계마다 대안들이 가진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은 곧 그 선택된 특성을 갖지 못하는 대안을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하여 한 가지 대안이 남을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Einhorn(1970)는 비상보적 의사결정 전략은 인지적으로 보다 단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는 의사결정자라도 이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Restle(1961)은 개인이 현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비상보적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각 이상적인 상황들은 그 자체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킨다. 선택된 최종의 반응은 현실상황과 가장 유사한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란 것이다.

Mitchell(1975)은 Restle의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1) 검토될 진로대안을 결정한다.
- 2) 진로대안의 어떤 특성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한지 확인한다.
- 3) 연구 참여자들에게 앞에서 기술한 중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진로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다.
- 4) 그들이 개인적으로 각 특성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하게 한다.
- 5) 각 특성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를 응답하게 한다.

즉, 결합 모델에서는 진로대안의 어떤 특성이 각자에게 더 중요한지를 결저쟁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대효용 모델에서보다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순차적 배제 모델(Gati,1986)

각 직업의 대안을 어떤 특성의 종합체로 본다. 특성이란 높은 사회적 지위 또는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등의 어떤 측면의 질적 또는 양적 수준을 말하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것처럼 수준이나 양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특성도 있다. 어떤 배제의 단계에서든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측면)이 선택된다. 중요한 측면을 선택하고 나면 그 특성을 기준으로 진로대안을 제외시키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러한 측면선택과 대안배제의 과정은 한 가지 대안이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어떤 측면의 특성이란 사회적 지위처럼 그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되고, 교대근무와 같이 그 특성이 없어야 하는 것도 된다. 만

족할 수준이나 그 수준의 방향성은 개인이 정하는 것이다. 즉,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지하지 못한 특성은 진로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해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될 수 있다.

순차적 배제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의 여러 측면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한 것이며, 여기에서 직업의 측면이란 신체적 장애나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제약조건, 직업과 관련된 가치, 일의 영역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Gati(1986)는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직업의 여러 측면과 그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각자에게 중요한 측면과 그 측면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Gati는 진로의사결정에 고려되는 측면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하거나 진로선택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말해 보게 한다; (b)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진로대안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게 하고 그 직업의 구직가능성, 직업의 동향 등 그 특성을 기술하게 한다.

(c)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대안들의 구조를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게 한다.

지금까지 정리해 본 세 가지 의사결정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바로 진로선택을 할 때 각 진로대안의 어떤 측면들을 고려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그 측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된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지는 직업의 여러 측면을 정의하고 그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3. 타협측면의 우선순위

가. 타협과정의 원리

Gottfredson이 제시한 세 가지 타협과정에 관한 원리

① 자아개념의 어떤 측면은 다른 측면에 비해서 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진로목표를 타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측면은 우선권을 갖는다.(성역할>개인의 사회적인 위치(직업의 사회적 지위)>개인의 성격과 흥미)

“성격유형(흥미영역)과 진로기대 사이의 관계는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그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즉,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의 적합성 때문에 자신의 흥미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진로탐색의 과정은 반드시 최상의 대안 선택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만족할 만한 선택에서 종료된다.

진로선택의 우연적 또는 기회적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특정한 직업의 획득은 계획보다는 기회의 함수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추루함에 있어 보다 수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진로선택에서의 운이라는 요인의 작용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장이라고 Gottfredson은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던 최사으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운에 의해 결정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

③ 진로선택 이후에는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이 취한 타협에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세 번째 원리인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서 Gottfredson은 진로의사결정 이후 적응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타협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은 선택한 진로에서의 만족도와 깊이 관련된다고 한다.

Gottfredson과 Becker(1981)는 보다 적응적인 직업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영역에 맞게 자신의 진로기대를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흥미영역과 동일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직업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직업만족도와 근소한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Gottfredson은 흥미라는 것이 진로의사결정에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Gottfredson(1996)은 “개인은 일의 영역 대해서는 많은 타협을 했다 해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타협이나 성적 정체감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성역할의 포기에는 더욱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하면서 타협에 대한 적응의 준비도는 타협의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타협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다. 타협과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

Taylor와 Pryor(1985)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보다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성역할에 덜 민감하다고 밝히고, 흥미영역, 사회적 지위, 성역할의 상대적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지위가 낮더라도 보다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남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의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영역이 아닌 학과를 선택하고, 보다 남성에게 적절한 직업을 선호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Holt(1989)

공학 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개인의 흥미영역에 따라 타협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Leung(1993) 문화적차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Gottfredson(1996) - 조건적 타협 우선순위의 원리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이 갖는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은 요구되는 타협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① 개인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과 차이가 적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흥미영역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흥미영역에 일치된 진로가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도 충족시켜주게 된다.

② 직업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영역에 있어 중간 정도의 포기를 해야 할 때, 누구나 사회적 지위에 타협하는 것을 꺼린다. 반면 성역할이 아주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많은 타협을 요구하는 진로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의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영역에 있는 진로부터 포기한다. 또한 다음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반대의 성역할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

④ 흥미영역은 언제나 중간 정도로 고려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준이 되지 않으면 흥미영역은 포기되고,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이 선택된다.”

Vandiver와 Bowman(1996)은 타협의 우선 순위가 각 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스키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Vandiver와 Bowman이 인지적 스키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심리적 구인은 진로영역에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인 직업가치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에 대한 인지적 스키마가 확고한 개인의 경우 흥미영역에 타협하기 보다는 흥미영역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해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에 타협하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에 모두 인지적 스키마가 확고하여 흥미영역, 성역할, 사회적 지위 어디에도 타협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타협하기보다는 오로지 한 가지 진로만을 추구하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 가지 영역 어디에도 인지적인 스키마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흥미영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세 가지 주용한 요인이 아니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종류의 진로를 전전하며 방황하게 된다.

Vandiver와 Bowman은 각 개인이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시킨 진로자아개념의 보편성보다는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진로자아개념의 발달, 의사결정 모델, 타협측면의 우선순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발달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타협과정의 내적인 기준이 되는 진로자아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즉각적인 선택으로 보기보다는 발달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진로자아개념 연구는 보편적인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의사결정모델은 타협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기대효용 모델, 결합 모델, 순차적 배제 모델로 발전해 온 의사결정 모델의 내용은 바로 진로자아개념을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현재는 우선순위의 보편성보다는 타협 우선순위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즉, 타협의 어떤 측면이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기보다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관점이다.